

광주 평동산단 폐기물시설 추진 놓고 대립각

주민들 “투자협약·부지 매각 절차, 투명하지 않다”

광주시 “주민·유관기관 소통 거쳐 절차대로 추진”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업체가 맺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투자 협약·부지 매각 등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처리 시설이 당초 협약 사항에 어긋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27일 성명을 내고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 계약은 주민들을 무시한 기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 월전동 평동 2차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민간업체에게 매각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6개월이 넘도록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재활용 센터라고 해도 주민 동의와 사전 설명이 필요한 소

통의 시대다”며 “대규모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들이려는 투자협약과 부지 매각 계약까지 해놓고도 광주시·시의회, 광주도시공사, 광산구청 등 어느 기관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밀실 행정의 표본이며 ‘밀어붙이기’식 정치와 다름이 없다”며 “계약서 내용만 보면 20일 동안 폐기물을 수거해 하루에 소각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엉터리 사업 계획이다”며 “투자협약서에 적힌 668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와 고용 인력 50여 명 등을 감안, 고용 인력을 보면 1일 2t 규모의 사업계획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은 걱정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 주민 8000여 명의 반대를 표했지만 ‘도시공사·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일’이라는 형식적 답변이 돌아왔다”고



본노했다. 단체는 “이용섭 시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부지 계약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오는 28일 시청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주민·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정해진 절차대로 시설 투자 협약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2006년 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당시 의견 수렴·기관 협의 ▲2008년 이후 매각 용지 공급 공고(9차례) 추진·선착순 수의 계약 전환 등을 들었다.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을 염두에 뒀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자협약은 매매 계약 이후인 지난해 9월 서면으로 맺었다.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관련 내용 위반 시 매매계약을 해제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도 확보했다”고 답했다.

또 “민약 민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을 통해 시설 증량을 요청하면 불허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 건강·환경 보전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광주 동부소방, 어린이집 찾아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오늘 오전 평화어린이집을 찾아 보육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관련 응급처치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비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응급처치 이론·실습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교육(소·소·심) ▲영·유아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기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피난기구 사용법 및 대피 먼저 안내 등이다.

김석순 119재난대응단장은 “영·유아의 경우 기도폐쇄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우려가 많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모든 종사자에게 전파해 응급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윤희기자

완도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말까지 집중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둔갑 유통, 판매 행위 ▲중국 등 제 3국의 수산물을 일본산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판매업체를 파악하여 지자체·완도지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수산물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완도=이민혁기자

“아빠가 고교생 아들 골프채로 폭행” 신고...경찰 수사

원격 수업 불참·반항 이유로 체벌 추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며 아버지가 아들을 골프채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

난 26일 오전 10시40분께 ‘아버지 A씨가 고등학생 아들을 골프채로 다리 등을 때렸다’는 신고가 관할 지구대를 통해 접수됐다.

A씨는 아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하

지 않고, 담임 교사와 통화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A씨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 객관

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 이른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친권자의 자녀 체벌은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배관 타고 전 여친 집 들어가 “같이 죽자”...구속영장

헤어진 뒤 현관문 비밀번호 바꾼 데 ‘양심’

피해자 집 들어가 “같이 죽자” 협박하기도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관악구의 다세대 빌라 외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B씨의 3층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오전 5시30분께 A씨가 잠든 사이 집 밖으로 탈출해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

을 통보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서 집에 침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방법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 측과 후속 보호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 수상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나주경찰서는 평소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계산원에 위문품 전달 및 환경정리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시설 내 장애인 이탈 시 적극적으로 수색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점 등을 높이 인정받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야영장 등 화재안전관리대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봄철 야외 활동량 증가로 인해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야영장 등 휴양시설 내 화재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화재안전키트 제공 등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야영장·캠핑장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점검, 특별점검을 통한 화재 위험요소 제거, 화재안전키트 무료 대여 ZONE 운영 및 야광소화기 설치, 산림화재 대응능력 강화 무각본 가상화재훈련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야영장 글램핑 및 캠핑장은 대부분 산, 계곡 등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있으며 또한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시민이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안전점검과 예찰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